

2020년 11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

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팀장 최선두(044-201-7491), 사무관 김태윤(7494) / 제공일: 11월 10일(총 9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충남 천안(병천천)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식품부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 발령

1. 충남 천안(병천천)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 와 환경부(장관: 조명래)는 충남 천안시(병천천)에서 11월 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, 11월 10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.
- 농식품부는 이번 천안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된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- ① 항원 검출지점(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) 반경 500m 내 사람·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,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 점검

② 향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·군(천안·청주·세종)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

③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(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)까지 중단 등

□ 한편, 환경부는 ‘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’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.

① 향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·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

②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, 멸종위기종 복원센터,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

③ 향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

□ 농식품부는 천안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향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(10개소)*와 양쪽 3km 내 지역인 “AI 특별관리지역”에 대한 방역조치**를 11월 24일(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)까지 연장한다.

* (경기) 청미천, 안성천, 진위천, (충남) 봉강천, 병천천, 풍서천, 곡교천, (충북) 무심천, 보강천, 미호천

**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, 가금농장 예찰·검사 강화 등

2. 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” 발령

-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위험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11월 10일, 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”를 발령하였다.

❖ **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** : 긴급행동지침(SOP)상의 위기 경보 단계 (관심-주의-심각, 현재 AI는 ‘주의’ 단계)와는 별도로 위험상황 발생시 축산농장, 관련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(수시 발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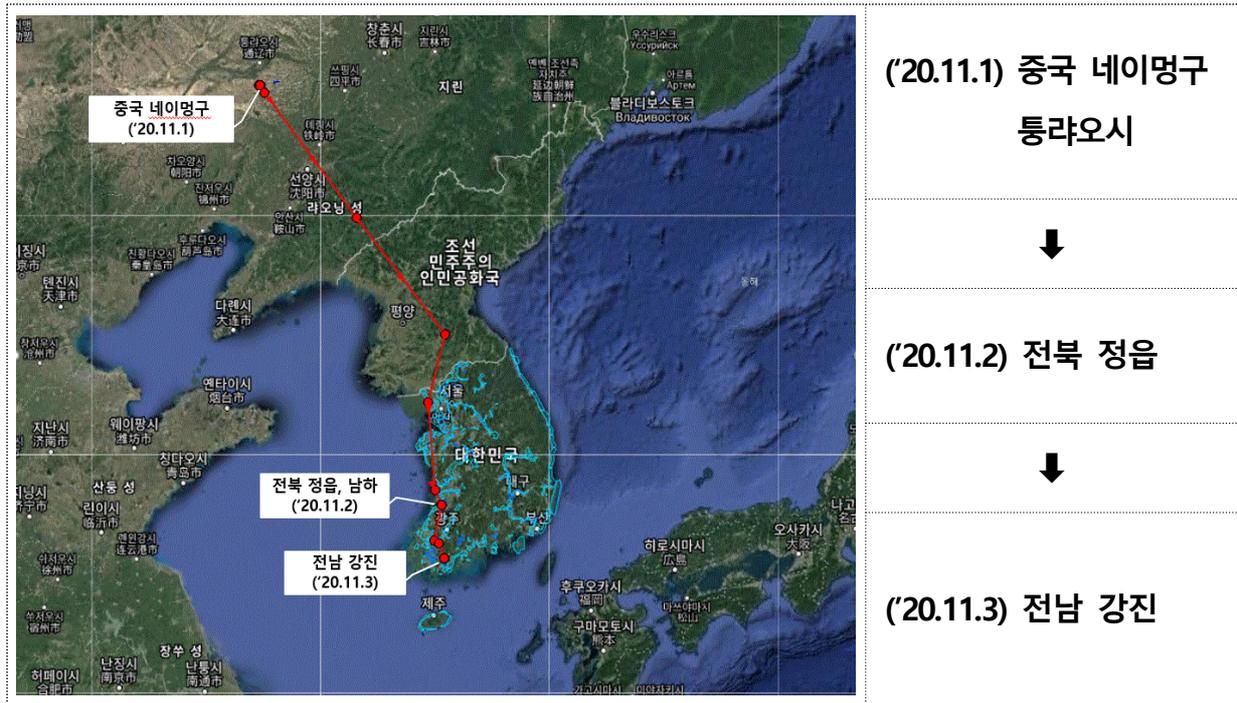
(1) 최근 상황

- 국내 야생조류는 이번 동절기 들어 천안 봉강천(10.21), 용인 청미천(10.24)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된 후 10일 만에 천안 병천천(11.3)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었다.
- 또한, 철새에 GPS를 부착하여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, 11월 1일 중국 네이멍구(내몽골자치구)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, 11월 3일 전남 강진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중국 네이멍구는 몽골('20년 4월 큰고니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2건 검출)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 상에 위치

** 그동안 우리나라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시 항원 검출 건수 : 11건('16년~'17년)

《 GPS 부착 큰고니의 이동 정보(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) 》



□ 일본은 10월 24일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된 후 2주일 안에 카가와현 산란계 농장에서도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2건(11.4, 11.7) 발생하였다.

□ 최근 국내 야생조류 도래 및 항원 검출 상황과 주변국 발생 상황을 감안할 때,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.

(2)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역 강화

- 농식품부는 이번 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” 발령에 따라 「철새도래지 - 차량·사람 - 가금농장」의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한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.

 **격리·소독 + 3중 차단망**

 철새도래지	 차량·사람	 가금농장
격리 축산차량 진입과 낚시·산책 목적 방문 통제	소독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축산 차량 운전자 소독	차단 외부 차량·사람 진입 통제, 소독여부 확인 후 허용
소독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도로 집중 소독	소독 농장 진입로 집중 소독	소독 농장 내·외부 매일 소독, 생석회 벨트 구축

<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첫 검출(천안 봉강천)에 따른 방역 전략(10.26)>

- 철새도래지와 주요 도로, 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를 위해 10월말 기준 소독장비 300대(광역방제기 68, 소독차 211, 軍제독차 8, 살수차 6, 드론 7)에서 - 농진청·농협 등을 통해 광역방제기(50대)와 살수차(18) 드론(96)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11월 말까지 총 464대를 동원한다.
- 또한 전국 철새도래지(103개소)에 대한 야생조류 서식 지도(주요 관찰 장소 및 서식 범위)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소독과 시료 채취, 사람·차량 출입 통제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.

□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*,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 이행 상황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.

* 차량·사람을 통한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소독시설

○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(103개소)는 중앙 점검반(농식품부 103개반)을 현장에 파견하여 차량·사람 출입 통제와 도래지 주변·인근 도로 소독 실태에 대해 11월 1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.

○ 그동안 한차례 점검을 실시한 거점소독시설(169개소)과 취약 가금농장(오리, 산란계 등 4,819호)은 특별 현장점검반(방역본부 44개반)을 구성하여,

-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차량·사람 소독 실태와 농장 소독·방역시설,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1개월마다 반복 점검한다.

□ 또한 농식품부는 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” 발령 상황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(참고1)을,

○ 문자메시지, 단체채팅방(지자체·생산자단체) 등을 통해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·차량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.

(3) 당부사항

-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“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 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**엄중한 상황**”이라며,
 - “가금농가에서 농장 외부와 축사 외부는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,
 -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라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, 농장 마당 매일 청소·소독,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·손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-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“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,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【 가금농장 】

농장 외부	○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(외부에서 용무),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
	○ 보유 농기계·차량은 세척·소독 후 농장 출입,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
	○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 '생석회 벨트' 구축
	○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(낙시·산책 등)와 소하천, 야산 방문 금지
농장 내부	○ 소독설비, 울타리,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
	○ 왕겨살포기,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·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,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
축사 내부	○ 농장 마당,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·소독, 쥐·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
	○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(쥐·새 등) 차단용 그물망 설치
	○ 축사 출입시 방역복·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, 장화 갈아신기 준수
	○ 축사 내부 매일 소독,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
	○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, 산란율 저하, 설사, 기침, 졸음, 청색증 등 이상 여부를 매일 관찰하고,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

【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】

축산 시설*	○ 출입 차량·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
	○ 가금 수송용기(어리장), 식용란 운반 용기(난좌, 파레트, 합판) 등 소독 철저
	○ 축산시설 내·외부를 매일 세척·소독하여 오염원 제거
	○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(쥐·새 등) 차단용 그물망 설치
축산 차량	○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,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, 고장시 즉시 수리
	○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,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-거점소독시설-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
	○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(우회로 이용)

* 도축장, 사료공장, 부화장, 분뇨비료업체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용란수집판매업 등

참고2

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검출 현황

'20.10월 이후 야생조류 AI항원(H5/H7) 검출 현황(11.10. 기준)

